

편의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적어... 소비자 이용률 저조

약국 문닫는 시간대 매출 74%뿐... 상시적으로 안 팔려 약사협회 반대로 4개 효능군 11종 판매 13년째 발 묶여 심야약국 전국 64곳... 밤 10~새벽 1시 운영, 제 역할 못해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매출 중 74%가 약국 문이 닫히는 시간대로 나타났다.

9일 본지가 편의점 협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소염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22년 5만3753건, 2023년 5만8194건, 2024년 5만55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를 모두 더한 합계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는 유통망을 고려하면 결코 큰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이 상시적으로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선택되는 품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표 품목인 타이레놀 500mg은 2022년 2만1507건, 2023년 2만2815건으로 늘었으나 2024년에는 2만1883건으로 감소했다. 판촉에이내복약은 같은 기간 1만2552건에서 1만6299건으로 늘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 4813종 가운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뿐이다. 제도상 13종의 판

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2종이 단종된 이후 교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단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명절마다 반복되는 상비약 품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전국 1087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실시하는 2차 인식조사로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5.4%는 품목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62.1%)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로 생산 중단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9.3%)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셈이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13년째 동일 품목이 바뀐 적이 없다(83.6%)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뚜렷했다.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



서울 24시간 편의점에 상비약이 진열되어 있다.

박미나선임기자

(46.7%)와 '증상별 세분화(44%)'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의약품이 4813종인 것에 비해 약국 외 판매 품목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반면 일본, 영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선 최소

120종에서 많게는 30만종까지 판매하고 있다.

시간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08시~13시(11.3%), 13~17시(14.3%), 17~21시(27.7%), 05~08시(10.5%)로 약국 문이 닫히는 시간대에 전체 판매량이 74.3%(17~다음날 08시) 차지한다.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매출 규모가 8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전국 편의점 상비약 총 매출은 832억1400만 원,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한 826억3600만 원에 그쳤다.

약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약물 오남용'

이다. 그리고 굳이 편의점이 아니라 심야 약국을 이용해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전국에 64곳에 불과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여서 소비자 불편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그간 보건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5년간 신약 승인 137건 국산 25건... 18% 불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승인된 신약 137건 가운데 국내 제조 신약은 25건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승인된 합성신약, 생물신약, 생약제제 총 137건 중 수입 신약은 112건으로 국내 제조 신약의 4.5배에 달했다.

국산 신약 승인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2건까지 줄었다가 올해는 3건으로 소폭 반등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3000건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성과라는 평가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파이프라인 수는 3233개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일부 기업은 복잡한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원개발 신물질을 해외에서 생산해 역수입 방식으로 신약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당국은 신속 심사, 업계는 파이프라인 선별을 통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국내 승인 신약중 국내 제조 신약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메세라 인수' 승자는 화이자... 비만약 개발 경쟁 재진입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성공하며 비만치료제 개발 경쟁에 다시 도전한다. 화이자

노보노디스크와 인수경쟁서 승리... 100억 달러 투자

화이자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임상단계 생명공학기업 메세라(Metsera)를 인수에 성공해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 경쟁에 재도전한다.

메세라는 7일(현지시간) 이사회 의장인 일지 권고로 화이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금액은 주당 최대 86.25달러(총액 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주당 65.60달러의 현금과 규제승인과 상업화 성공 시 지급받는 조건부 가치권리

(CVR) 20.65달러 등을 포함한 조건이다.

이사회는 또다른 인수 제안자인 노보노디스크와의 합병계약 체결 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O)의 반독점법 등 규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화이자와의 계약이 주주 이익에 부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메세라는 13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이자 메세라 인수를 통해 비만치료제 개발 경쟁에 다시 합류하게 됐다. 개발

중이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danuglipron, 개발명 PF-06882961)의 임상시험에서 간손상 우려가 제기되자 임상 개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다누글리프론은 초기 1일 2회 복용 방식에서 부작용 완화를 위해 1일 1회 복용 방식으로 변경돼 개발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은 이후 올해 4월 임상개발을 잠정 중단했다.

화이자 이번 인수를 통해 메세라가 개발 중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RA)와 아밀린 기반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확보

하고 다시 경쟁력을 갖춘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속도가 빠른 MET-097과 MET-233의 경우 주사제형으로 초기 임상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월 1회 투약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외 경구 비만 및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 9월 73억 달러에 메세라 인수를 발표한 이후 노보노디스크가 17억 달러가 많은 90억 달러를 제시 인수경쟁이 펼쳐졌다. 이번에 100억 달러로 가격을 올린 화이자 최종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첨가
- 브로멜라인
- 레시틴 풍부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